

신안군, 튜립공원 상춘객 인파로 '복적'

튜립축제 취소 불구 10만여명 상춘객 신안 입자도 방문 35품종 100만송이 튜립·홍매화정원 등 다양한 산책로

신안군은 코로나19로 인해 4월 개최 예정이던 튜립축제를 전면 취소하고 8일부터 튜립공원 운영을 시작했다. 축제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봄나들이 인파의 행렬은 줄을 이어 4월 한달간 10만여 명의 상춘객이 입자도 튜립공원을 방문했다. 튜립공원에는 35품종 100만송이 튜립과 함께 홍매화정원, 카네이션동백정원, 애기동백 숲길 등 다양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특히 2021년 블루플래그 국제해변 인증을 받은 대광해수욕장과 조희룡 미술관이 연

계된 입자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진 일상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신안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였다. 신안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진 국민들이 화려한 튜립과 함께 12km의 드넓은 백사장이 있는 대광해수욕장에서 조금이나마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며,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을 조성하여 여름철 대광해수욕장 개장시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무안군, 양파 재배 전 과정 기계화 박사

농가 인력난 해소·생산비 절감 기대

무안군은 육묘, 정식, 수확, 저장 등 양파재배의 전 과정을 기계화하기 위한 양파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총 44억원(국·도·비 포함)을 투입해 양파 재배 전 과정에 필요한 농업기계를 구입 후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에 내구연한 동안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양파 기계정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앞으로 군은 양파 전 과정 기계화를 적극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군은 최근 해제면 일대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파 기계 수확에 관련된 농기계 3종 8대에 대해 연시회를 개최했고 무안군에 적합한 줄기절단기, 굴취기, 수집기 등을 5월 중에 구입해 이번 중만생 수확부터 활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군은 양파 육묘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육묘교육 실시해 실패율을 낮추고 농촌 고령화에 대비해 양파 정식기 등을 추가 구입함으로써 추후 양파 수확시기까지 기계화 면적을 150ha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무안=이기성기자

영암군,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홍보물 배부

영암군은 지난 4월부터 (사)한국외식업 중앙회 영암군지부(이하 외식업지부)와 함께 관내 일반음식점 800개소를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 홍보물을 배부 중이다. 이번 홍보물 지원은 외식업지부와 함께 구입한 위생도마, 위생복으로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도록 영업장의 위생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제공하며 음식 덜어먹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같은 식사 문화 조성을 홍보하여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올해도 군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1. 안전한 음식문화 구축, 2. 음식점 관리강화로 접근성 제고, 3. 음식문화개선 활성화라는 세 가지 전략과제를 세우고 음식문화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목포시, 다변화 관광트렌드 선제 대응 역량 강화 전문가 초빙해 지역개발형 축제...야간경제 관광 중요성 인식

목포시가 다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 22일 팀장급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배재대학교 정강관 교수를 초빙해 '지역개발형 축제의 이해와 신 야간경제관광'을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정 교수는 오징어게임, BTS 등 전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소프트웨어(예술, 역사, 축제 등) 산업을 거론하며 지역 축제의 글로벌 교류 추진과 강도 높은 일탈성 축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동취재본부

이어 보령머드축제와 스페인 토마토축제의 국제 교류, 진주남강유등축제의 글로벌화의 결실인 미국 텍사스 맥알렌시 크리스마스퍼레이드를 성공 사례로 꼽으며 "목포항구축제와 세계마당페스티벌 등을 국제적인 지역개발형 축제로 발전시키자"고 역설했다. 또 야간경제관광구역 설정(영국), 야간경제-야간관광 선연(중국), 야간형 축제-비비드 시드니(호주) 등 전 세계의 야간경제(Night-Time Economy) 물결의 분위기를 제시하며 야간라이프를 위한 정책과 야간관광 모델의 필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영광군, 쌀 적정생산대책 읍면 설명회 개최

5ha이상 재배 관내 471개 농가 대상

영광군은 벼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벼를 5ha이상 재배하는 관내 471개 농가를 대상으로 쌀 적정생산대책에 관한 읍면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쌀 적정생산제'는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눈에 콩, 밀 등 타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이다. 신청 요건은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으로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올해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계획하고 있는 농지가 대상이다. 품목 및 면적 제한은 없으며,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참여 희망 농가는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5월 31일까지 제

출하면 된다. 7월까지 이행 여부를 거쳐 8월 중순까지 공공비축미 배정수량 확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참여 농가에는 1ha 기준 공공비축미 150포대를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다. 또 농업법인·RPC·지역농협의 경우에는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와 벼 매입 무이자 자금 차등 배정, 무이자 경영자금 및 농기계 지원 우선 선정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영광군은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달성과 지역 농업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극대화를 위해 행정, 유관기관, 농협,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쌀 적정생산대책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농가 참여 홍보, 실적 관리, 작목 전환에 따른 기술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영광=서희권기자

함평군, '풍년농사 첫걸음' 범씨소독 기술지원 나서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올바른 범씨 소독을 위한 현장 기술지원에 나섰다. 26일 군에 따르면 올해 벼 보급종은 소독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키다리병, 도열병, 깨씨무늬병 등 병해충 방제를 위해 범씨 소독이 필수적이다. 우선, 종자 소독에 앞서 '소금물 가리기'를 실시해 충실한 범씨를 골라내야 한다. 매벼(물 200, 소금 4.24kg)와 참벼(물 200, 소금 1.36kg)를 소금물에 3~10분 이내로 담가 가라앉은 범씨만 행귀내 사용한다. 단, 종자의 정선 상태가 좋으면 이 과정은 생략할 수 있다. 벼 종자 소독 방법은 온탕소독과 약제 침지 소독이 일반적이다. 온탕소독은 범씨를 종자망에 담아 20kg당 60℃ 물 200ℓ에 10분간 담근 후 냉수 처리한다. 함평=김광훈기자

**아세요?
한수원이요즘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